

회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후원미사는 15일, 11월 후원미사는 19일, 12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8년 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6,467,690	전월이월금	5,000
지 로	570,130	우리은행	3,507,740
국민은행	4,334,350	하나은행	1,276,120
조흥은행	1,246,000	신한은행	3,532,150
외환은행	25,000	제일은행	70,290
농 협	1,300,260	기업은행	160,030
우 체 국	440,62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637,690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6,462,690	잔액(이월금)	5,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8. 9 / 제27호

펴낸날 2018. 9.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유래없이 지독했던 더위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 좋은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즈음입니다. 청명하게 맑은 가을 날씨와는 달리 오늘도 많은 이주민들은 이 좋은 계절을 행복하게만 지내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얼마 전 두 분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가 끝없이 미뤄지지만 하는 것에 대항하여 청사 앞에서 2주 넘게 단식투쟁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문제로 언론이 시끄럽긴 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수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뿐 우리 안에 커켜이 쌓여왔었습니다.

얼마 전 난민신청자인 중학교 3학년인 이란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란에서 살았던 날보다 한국에서 지낸 날이 더 많은 친구였고, 이제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린 친구였습니다. 한국여성과 재혼한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한국에 왔고, 아버지가 다시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둘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학교장의 배려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면서 자연스레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다. 하지만 이란에서 개종은 사형을 받게 되는 중죄이기에 난민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그 과정은 차별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면담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같이 많았지만 감독관의 질문은 모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었고, 심지어 면담결과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붙었습니다. 난민법은 있지만 실제로 난민신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배려는 없습니다. 애초에 난민으로 인정해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만난 것 같다는 이 친구의 말에 그저 아직 우리나라의 한계인 것 같으며 무기력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에 벗어나는 수많은 증거들을 외면하고, 본인이 확신하는 바에 해당되는 내용들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낯설은 당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고향땅을 떠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인간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써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이었다."(탈출 22,20)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어린이 연합 하계 캠프 소식*

마고네공부방, 남미공동체와 중국공동체의 어린이들과 함께(위원장신부님, 공동체 담당 수녀님 포함 총 27명) 8월 23~24일 대성리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물놀이, 박물관 견학 등으로 신나는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태풍 소식에 캠프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으나 어린이들 방학 일정에 어쩔 수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부지역을 빙거나가 한여름 무더위에 시원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약해봅니다.



상호문화센터 소식* - 한국어 수업

상호문화센터에서는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이수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5개 반을(한국어기초, 한국어초급(1,2), 한국어중급(1,2), 한국사회의 이해) 운영하고 10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8월까지 1학기를 마치고 9월부터 2학기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며 센터 교사와 실무자들의 소통과 공감으로 한국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사목위원회 공동체별 주일미사 시간

공동체	미사시간	장 소	집전사제
필리핀공동체	첫째 토요일 20:30	필리핀 센터	Fr.알프레도
	매주일 13:30	해화동 본당	
베트남공동체	매주 토요일 19:00	베트남공동체公所	Fr.하오
	매주일 12:00		
남미공동체	첫째,셋째 주일 16:00	역곡 곤솔라타 선교 수도회	곤솔라타 선교 수도회
	둘째,넷째 주일 11:0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과달루페 선교회
몽골공동체	매월 셋째 주일 12:0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Fr.남창현
중국공동체	매월 첫째 주일 11:0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Fr.정중리

*태국공동체는 담당사제 공석으로 미사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물놀이



▲ 지진대피훈련



▲ 서울성곽나들이

문화알림 결혼문화 2편



결혼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릴 때 술이나 차를 대접하면서 큰 절을 올리는데 이때 절값으로 신부에게 흥빠오(축하의 돈이 들어있는 빨간봉투)를 줍니다. 하객들도 축하금을 흥빠오에 넣어서 주는데 보통 짝수로 줍니다.

중국의 현대 결혼식은 사회지만 있을 뿐 주례나 주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치파오를 입는 경우도 있으며, 중국은 강렬한 빨간색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에 레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결혼 생활이 달콤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며 시탕(喜糖)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국수 언제 먹니?'라고 물어보는 반면, 중국에서는 시탕 언제 먹을 수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몽골인들은 대부분 결혼식을 '결혼궁전'이라는 장소에서 하는데 몽골에서 결혼궁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하루에 많게는 90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결혼식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주례가 따로 없이 결혼담당 공무원이 신랑신부와 증인들의 서명을 받고 부부임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서는 아주 가까운 친지정도이고 일반 하객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을 여는데 우유와 몽골치즈 등을 나눠먹으면서 축복을 기원합니다. 몽골에서 우유는 깨끗함과 순수, 잡귀를 물리친다는 긍정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은 거리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에서 대체로 신부는 태국전통 예복을 입고 신랑은 통상적인 정장을 많이 입습니다.

한국은 보통 남자측에서 집을 구하고 여자측에선 혼수를 해오는데 태국에서는 남자가 집도 구하고 혼수도 해주며 신수이라는 예물까지 전부 준비합니다. 하지만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신수를 마련하기가 힘들어 결혼을 못하는 경우까지 있기에 요즘엔 신부측과 미리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결혼식에는 9명의 승려가 초대되는데 '9'라는 숫자는 태국에서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승려는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는 의식을 치르며 승려들은 불교계율에 따라 정오가 지난 이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신랑, 신부가 한 가닥의 실에 의해 연결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결혼식 날 장모가 신랑, 신부의 머리 위에 실타래를 얹어줍니다.